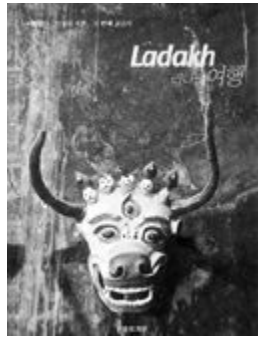


사진작가 박하선이 이끄는 여행집단 '문명의 저편'



미지의 생명력 찾아 시간여행

지난 2000년 모임꾸러 서양화가 김해성씨 등 참여 매년 여정 담은 보고서 출간을 8월 일반인 대상 하계여행



여행 집단 '문명의 저편'은 여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꾸러가는 모임이다. 그래서 편안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찾기보다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소박한 사람들과 때 묻지 않는 풍광을 갖고 있는 '오지'로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

이후 매년 2~3차례 인터넷을 통해 여행단이 꾸러진다. 남인도(드라비다 힌두문화 체험), 캄보디아(앙코르 유적과 킬링 필드 현장 답사), 스리랑카(문화 삼각지대와 지프 사파리), 미얀마(바간과 인레호수) 등을 다녀왔다. 특히 실크로드에는 고비 사막 체험, 대상을 따라간 예술 여행, 상카의 초원과 오아시스 체험 등 다양한 테마로 수차례 방문했다.

여행 집단 '문명의 저편'은 여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꾸러가는 모임이다. 그래서 편안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찾기보다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소박한 사람들과 때 묻지 않는 풍광을 갖고 있는 '오지'로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

'문명의 저편'을 이끄는 이는 사진작가 박하선(55)씨다. 박단장은 20여년 전부터 지구촌 오지를 탐험하며 작품을 활동해오고 있다. 그는 사진을 통해 자신이 보고 느낀 것들을 전해주는 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이 현장에서 느끼는 '진짜'를 느낄 수 없는 게 안타까웠다.

특히 여행단의 절반은 청소년들로 꾸러려한다. 청소년기에 접한 문화적 감성과 충격이 주는 여파는 엄청나게 때문이다. 또 하나, 생각도 비슷하고, 힘든 것 싫어하고, 구태의연할 수 있는 성인들과 달리 아이들이 힘든 과정도 잘 견디는 등 어른들에게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문명의 저편'은 여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하고 있다. 뒷날 나인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지난해에는 '라다크 여행'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책 출간 작업은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2008년 7월5일~16일까지 화가 김해성씨, 사진작가 라구채·김마라씨 등 12명이 함께 떠난 기록인 '라다크 여행'에서 참가자들은 직접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렸다. 책에는 독특한 헤미스 축제, 태고의 신비 자체인 관광 호수, 지구상에서 자동차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카르들라'(고도 5천700m) 등의 풍광과 거처서 느낀 감정들이 빼곡하게 담겼다.

박단장은 8월 중순쯤 '문명의 저편'의 하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당초 중동 지방을 계획했지만 위험 때문에 미안함 등으로 여행을 추진중이다. 한편 박단장은 개인적인 작업에도 몰두하고 있다. 최근 개인 스튜디오 겸 '문명의 저편' 아지트와 문화기획을 맡은 '아시아문화비전'을 오픈했다.

또 영광부터 광양까지 해안선을 따라 걷는 '6천 300리 남도 갯길 도보여행'을 진행중이다. 제주도 올레길처럼 남도관광 새루트를 만드는 작업이다. 또 올레 페르시아 여행기 '페르시아 블루'를 출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천명'이라고 느끼게 된 '한민족 삼고사 작업'도 계속할 계획이다.

박단장은 "앞으로는 보고 즐기고 느끼고 체험하는 여행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나와 우리 문화까지 '보여주는' 여행문화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www.photodragon.com. 070-8272-1466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질박한 고전미... 문인화의 또다른 멋

이병오전... 25~7월1일 무등갤러리



'맑은 향기'

세련되면서도 질박한 고전미가 은은하게 풍기는 문인화를 선보이고 있는 이병오씨가 25~7월1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문인화의 전통을 새롭게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중견작가인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화사한 색감의 신작을 출품, 관람객들에게 문인화의 색다름을 맛있게 해준다.

'가을 노래'는 잔잔한 물살을 타며 노닐고 있는 비단 잉어와 주변의 나무를 간결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농묵, 담묵의 조화를 통해 원근감과 문인화의 멋스러움을 살렸고, 붓의 흐름이 생생하다.

또 '속삭임'은 나무술 사이로 드러난 해의 역동성을 형상화했고, 먹의 자유로운 변질을 통해 마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작각이 틀게 한다. 금봉 박행보 선생을 사사한 이씨는 대한민국의미술

전, 전남도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문인화 분과 이사, 광주미술협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김성범씨 다섯번째 동화 '뻘뻘한 칭찬 통장' 펴내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동화작가 김성범(47)씨가 초등학교 저학년용 대상으로 한 자신의 다섯 번째 동화 '뻘뻘한 칭찬 통장'을 냈다.

부모가 아이들의 학교 숙제를 대신 해주고, 정직하게 숙제를 한 어린이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꼬집는 작품이다. 또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진자 예술이란 무엇인지 알려준다.

초등학교 2학년 하리를 주인공으로 환경 글짓기 숙제를 낸 세 명의 친구들이 교내 대표로 글짓기대회 나가면서 벌어진 해프닝을 다뤘다.

김씨는 작가의 말을 통해 "작가는 학교 다닐 때에는 단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 본 적도 없다. 아마도 그래서 작가가 된 것 아닐까 어린이 친구들도 한번 곰곰 생각해 보라"고 쓰고 있다.

김씨는 곡성 출신으로 광주전남작가회의 이사와 디딤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개비를 소재로 한 책 '도개비살', '숨쉬는 책, 무익조' 등의 동화책과 창작동요 음반 '도개비살'을 내는 등 다양한 장르에서 문화 운동도 벌이고 있다. <미러아이·9천원>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시립합창단 135번째 연주회

25일 문예회관 대강당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사진) 제135회 정기연주회가 2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호국보훈의 달 기념 '합창의 밤'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안토니오 로티의 'Missa Brevis'를 시작으로 이영조의 '다시 부르는 노래', 박지훈의 '도라지 꽃' 등을 노래한다.

또 여성합창으로 '아글렐타' 'Cantemus' 등을 부르며 남성합창으로 미국의 민요 '언덕 위의 집'과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머리아'등을 들려준다.

한국 가곡합창 무대에서는 임원식의 '아무도 모르라고'와 장일남의 '비록' 조두남의 '선구자'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국가곡을 들려준다. 문의 062-510-9343.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백범 김구선생 '나의 소원전'

26일부터 일곡갤러리



광주전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 안종일)는 26일부터 7월2일까지 광주시 북구 일곡도서관 일곡갤러리에서 백범 김구선생 '나의 소원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백범 김구선생 <백범과 윤봉길의사> 서거 60주기를 맞아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한 것.

전시회에는 임시정부시절과 해방이후 활동, 전라도 지역 방문모습이 담긴 사진 판별, 연대기 등 20여점의 실사출력물이 전시된다.

또 협회 소장 유묵과 유물, 백범일지 영인본, 공개서한 등 다양한 문헌자료와 테드마크, 흉상도 전시된다. 문의 062-233-2477. /김대성기자 bigkim@

Large table containing real estate auction information, including columns for region (광역시, 구, 읍면동), lot number, area, and price. Includes a contact box for '정미경' with phone numbers 062-351-0664 and 010-7628-0664.